

윤상현 “국회의원 총사퇴… 野 입법 독재 항거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11일 오전 의원총회 후 윤 의원은 “조기 대선을 운운하며 대통령 시간을 뺏는 것은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 개헌한다고 해도 192석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없다”라고 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탄핵 소추 동일성 상실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만행을 지적한 윤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다”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尹대통령 복귀해 개헌해도 192석 거야에 맞설 수 없어”
與 지도부선 미온적… 장외투쟁·헌재 압박 하지 않기로
여론 주도 의면… 상황 닦기 급급한 기득권적 발상 논란

헌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 의원 108인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192명의 의원만 남게 되어 정족수 미달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정지된다. 이는 여야 합의없는 입법 강행29회의 졸탄핵 등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으려는 윤 의원의 결사 방안인 것이다.

윤 의원은 “야당은 비상 회의를 하루에 두세 번 하고 광장 시위에 나가며, 돌아와서 의원 총회를 하고도 또 밤새 비상대기를 한다”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총사퇴를 결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뒤이어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새겨야

할 대목이다”라며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를 다진 윤 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말처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경복궁역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의원 4인이 삭발식을 가지는 등 윤 대통령 파면에 힘을 쏟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

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대체로 거기(국회의원 총사퇴)에 대해서는 호응을 안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요구하는 각 지지자 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지금 시기에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행보는 논란을 피하고 상황을 조용히 덮으려는 ‘기득권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민주당, 단식·삭발·가두행진… 이재명 “與 헌재 겁박 마라”

탄핵 의원연대, 광화문광장서 탄핵 촉구 단식농성
민주당 일부 삭발식… 의원 전원 광화문 가두행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 끼칠 것인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삭발·가두행진 등 대규모 장외투쟁에 착수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에게 “헌

재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것을 두고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상이 참 환란스럽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기소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11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현승·강승규 의원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는 즉각 내란수고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천막에 머물 예정이다. 총 참여 의원은 49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앞서 9일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조진우·박홍배·전진숙 의원은 11일 국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식을 열었다. 12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8km 가두행진에 나섰다. 윤준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탄핵의 조속한 인용 여론전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는 논의가 많았다”며 “민주당 호·헌정 수호의 날 같은 개념으로 12일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까지 전체 의원이 거리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헌재와 광화문은 지척거리다.

여권 관계자는 “때로 몰려 헌재로 진격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헌재 겁박마라는 건 내로남불 중의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당 차원의 장외 투쟁은 없다고 했다. 몇몇 의원의 1인 시위를 침소봉대하고 이를 국민이 믿을 거라 여기는 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의견들이 나왔다”며 “지금 같은 기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與 ‘영장쇼핑’ 의혹 오동운 고발

주진우 “계획범죄”
이준석, 폐지법 발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쇼핑’ 의혹에 휩싸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민의힘에 의해 전격 고발됐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법 수사를 주장했으나 법아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처한 분위기다.

오 처장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 등을 청구·발부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10일 오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및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문제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닌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

러진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의하면 오 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한 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7일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이었다. 해당 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흘 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대동택견 선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기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름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용술(36대) 환기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선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7세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蔭)·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무(崇文殿武)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선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